

- **주요 뉴스:** 미국의 10월 소비자신뢰지수, 4/4분기 경제 성장 강화를 시사
 - 미국 백악관, 대통령은 유럽 방문에서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
 - 골드만 삭스, 미국 인플레이션 수준은 금년 연말 이후 지속 하락할 전망
 - 중국 상무성, 류허 부총리가 미국 재무장관에게 거시정책의 협력을 강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기업실적 호조와 긍정적인 경제지표 등으로 주가 상승 지속
주가 상승[+0.2%], 달러화 강세[+0.1%],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박테크의 양호한 실적과 소비심리 지표 개선 등이 견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여행 및 레저관련주 강세 등으로 8월 이후 최고 수준
 - **환율:** 달러화지수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FOMC 앞두고 관망 분위기 가운데 소폭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이 반영

※ 원/달러 1M NDF환율(1168.9원, +0.3원) 포함, 한국 CDS 포함

		10/26일	10/25일	전일대비			10/26일	10/2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574.8	4,566.5	0.18%	국채 금리 10y	미국	1.61%	1.63%	-2bp
	유럽	475.74	472.21	0.75%		독일	-0.12%	-0.11%	-1bp
	중국	3,597.6	3,609.9	-0.34%	CDS 5y	한국	19bp	19bp	0bp
	일본	29,106	28,600	1.77%		중국	46bp	46bp	0bp
	한국	3,049.1	3,020.5	0.94%	위험 지표	EMBI+	-	374	-
환율	달러지수	93.94	93.81	0.14%		VIX	15.98	15.24	4.86%
	유로화	1.1596	1.1608	-0.10%		WTI유	84.65	83.76	1.06%
	엔화	114.16	113.71	-0.39%	원자재	구리	449.3	452.8	-0.77%
	위안화	6.3833	6.3858	0.04%		금	1,792.9	1,807.7	-0.82%
	원화	1,167.6	1,168.4	0.0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의 10월 소비자신뢰지수, 4/4분기 경제 성장 강화를 시사

-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13.8로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예상치(108)를 상회. 델타 변이 감염 둔화로 소비자의 경제 전망이 개선된 영향.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
- 한편 9월 신규주택 판매도 연환산 80만채 증가로 예상치(74만채)를 넘어서면서 6개월 만에 최고 수준 기록. 시장에서는 그 동안의 재고 감소와 견조한 매수 지속 등이 신규주택 판매 호조로 이어졌다고 진단
- FWDDBONDS의 Christopher Rupkey는 양호한 노동시장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연말 성장 모멘텀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 Naroff Economics도 향후 이동이 점차 자유롭게 되면서 여행 등 소비도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백악관, 대통령은 유럽 방문에서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

-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G20 정상회의와 COP26에 참석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 안정, 이란 핵문제, 공급 차질 해소,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등을 논의할 예정

■ 미국 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복지 세출 법안 관련 주요 사안은 이견 지속

- 민주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는 세제, 약가 선정, 이민 등의 부문에서 여전히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 상,하원 원내 지도부는 조만간 합의가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측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골드만 삭스, 미국 인플레이션 수준은 금년 연말 이후 지속 하락할 전망

- 해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근원 PCE 인플레이션이 연말에 4.3%를 기록한 이후 내년 6월과 12월에 각각 3.0%, 2.1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 향후 반도체 및 인력 공급 증가, 항만 운영 정상화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한편 Susquehanna Financial Group에 따르면, 10월 일부 반도체의 리드타임(주문부터 납품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하기 시작. 또한 전체적으로는 21.9주를 기록하여 전월비 증가했지만, 증가폭이 1일에 불과해 정점 통과 가능성이 제기

■ HSBC, 영란은행은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

- 리즈 마틴 이코노미스트는 11월 회의에서 9명의 정책위원들 가운데 2명만이 금리인상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 베일리 총재도 동결을 지지할 것으로 추정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의무화를 지지

-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전세계 모든 기업들이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 충분한 수준의 탄소배출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중국 상무성, 류허 부총리가 미국 재무장관에게 거시정책의 협력을 강조

- 류허 부총리는 옐런 장관과 거시경제 여건과 양국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가졌다고 발표.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우려 사항을 이야기했으며, 특히 류허 부총리는 미국의 관세 및 자국 기업에 대한 대우 문제를 언급

■ 블룸버그 서베이, 금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지속

- 주요 투자은행의 금년과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각각 8.1%, 5.3%로 이전(8.4%, 5.5%) 대비 낮은 수준. 응답자들은 경기 둔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전력난과 부동산 시장 침체 심화 등을 거론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석탄가격의 장기 안정을 위한 방법을 검토

- 해당 방안을 위해 석탄 생산 관련 비용과 수익을 자세하게 조사. 새로운 방법은 비용과 적정 수준의 이익률, 시장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기준가격과 일정 범위의 가격 변동 등이 제시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전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2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FHFA 주택가격지수(전월비): 1.0%, 7월(1.4%), 예상치(1.3%)
- 미국 8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전년동월비): 19.7%, 7월(19.9%), 예상치(20.1%)

■ 주요 경제 이벤트(10/2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내구재수주, 도매재고, 상품 무역수지
- 독일 11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연준 의장의 규제완화 조치, 금융시스템 악화를 초래 - Financial Times

(Why Jay Powell has been a 'dangerous man' at the Fed)

- 민주당 일각에서는 파월 의장 재임 중 시행된 규제완화가 은행 시스템의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 연준의 브레이너드 이사도 규제완화가 대형은행의 자본요구액 축소를 유도하여 위기 시 대응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주장
- 파월 의장은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제한을 완화하여, 은행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인이 약화. 아울러 직,간접적으로 위험도 높은 투자를 제약하는 볼커룰을 수정하였고, 일자리 보호 등을 강조하는 금융개혁 입법도 저해

■ ECB의 초저금리 유지 공언, 투자자의 신뢰 획득은 역부족일 가능성 - 블룸버그

(ECB's Rock-Bottom Rate Pledge Is No Longer Convincing Investors)

- ECB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 경로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연준과 비교하여 완화적인 입장을 고수. 하지만 ECB의 초저금리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현재 -0.5%인 수산금리가 3년 후 0%대로 상승할 것을 예상
- 이는 공급차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고, 연준의 테이퍼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 NatWest Market의 Giles Gale은 금융시장이 ECB의 정책보다 먼저 움직인다고 언급

■ 미국 내 물가상승 압력 증가, 정부 주요 정책의제에 부정적 - The New York Times

(Rising Prices, Once Seen as Temporary, Threaten Biden's Agenda)

■ 최저임금제, 하위 계층의 소득증가는 가능하나 근무여건 개선 등은 기대난 - Financial Times

(Minimum wages are not a panacea)

■ 중국 에너지 위기, COP26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증폭 - WSJ

(China's Energy Crisis Complicates Its Plans for Climate Announcements Ahead of COP26)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